

# 해남 물김 생산액 올해 500억 돌파...역대 최고



해남군은 올해 물김 생산액이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 작황 호전에 '슈퍼 김' 개발도 한몫 마른 김 포함땀 소득 2000억 예상

해남 물김 생산액이 역대 최대인 5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해남군에 따르면 18일 현재 물김 생산액은 453억원(6만200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0t 정도가 줄었지만 금액은 26억원이 늘었다. 올해 물김 위판액은 김 생산이 끝나는 이달 말까지 지난해 486억원을 뛰어넘은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물김 가격은 120kg 1포대에 8만~9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가량 높아 사상 최대 위판액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물김 가격이 높게 형성된 것은 지난해 10월초에는 수온 정체와 영양염류 부족 등으로 작황이 좋지 않았지만 12월부터 바다수온이

빠르게 내려가고 작황이 호전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의 일명 '슈퍼 김'(해종1호) 품종 개발보급도 생산량 증가에 일조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올해 마른 김 생산까지 합하면 2000억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 김은 향미(香味)가 뛰어나고 맛이 좋아 지난해 '달리적 표시제'에 등록됐다. 올해 해남에서는 1250 여가가 7835ha의 면적에 10만1855척을 시설해 김을 생산하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 목포대, 지역 아동센터에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 부처간 협력 교육사업 선정

목포대학교 스포츠산업연구소 부설 스포츠교육센터(이하 스포츠교육센터)가 연말까지 광주·전남 지역 아동센터에 무용과 예술 통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목포대는 "스포츠 교육센터의 '어화동 예술놀이터' 프로그램이 지난 17일 문화예술진흥원 주관의 2014 부처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633@

스포츠교육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이달부터 (사)한국무용협회 목포지부와 협력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목포대에 '꿈다토 토요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 김선희 스포츠산업 연구소장은 "무용 및 예술 통합 교육 기회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된 전남 지역의 아동들에게 창의·인성 교육을 접하는 좋은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633@

## 신안 툽업축제 내달 18일 임자도서 개막

# 툽업 300만송이 '대향연' 조형물 설치 관광객 마중

전국 최대 규모의 툽업 단일 꽃축제인 신안 툽업축제가 다음달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임자도 대광 해변에서 열린다. '바다와 모래 그리고 300만 송이 툽업의 대향연'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 기간 동안 툽업 100여 종 300만 송이가 만개, 형형색색의 꽃 물결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7회째를 맞는 툽업 축제는 공식행사, 문화 및 체험행사로 나눠 진행된다. 툽업 축제장은 6만8000여㎡의 툽업공원과 툽업원, 구근원(알뿌리), 토끼어리원, 유리온실, 수변정원, 동물농장, 해송 소나무 숲길 등으로 구성돼 있다. 툽업공원은 툽업 외에도 수선화, 히아신스, 무스카리, 아이리스 등 초화 구근류와 리빙스톤데이지, 크리산세럼, 비올라 등 초화류(20여 종)도 만날 수 있다. 또한 축제장에는 생동감 넘치는 실측 사이즈의 마(馬)상 조형물과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의 거리', 툽업꽃 & 나비 조형물, 풍차 전망대, 툽업 파라솔, 대형 전망대, 유리툽업 등 각종 조형물들이 설치돼 관광객들의 눈을 즐겁게 해준다. 유리온실에는 다양한 종류의 다육식물, 인공연못, 벽면식물로 구성된 다육식물 전시관과 공중식물, 아자



전국 최대 규모의 툽업 단일 꽃축제인 신안 툽업축제가 다음달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임자도 대광해변에서 열린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수 등으로 꾸며진 아열대식물 전시관이 있다. 카페테리아에는 '신안 새어리·머그컵·매직 비누방울 만들기' 이 밖에도 툽업화분 만들기 등을 비롯해 해변 자전거타기, 툽업&유채꽃밭 승마체험, 소금 동굴 체험, 토끼어리·머그컵·매직 비누방울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거리도 마련했다. 한편 신안 임자도 대광해변은 백사장 길이가 12km로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 전북

#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개관 2년여만에 관람객 55만명 넘어섰다

### 70% 이상이 외지인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일제강점기 생활상을 잘 보여주는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이 개관 2년 5개월 만에 관람객 55만명을 돌파하는 등 지역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18일 군산시에 따르면 2012년 11월 유료화 이후 매월 평균 1만8000명이 박물관을 찾고 있다. 전체 관람객 가운데 70% 이상이 외지인으로 집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1년 9월 군산시의 옛 도심인 장미동에 들어선 근대 역사박물관은 182억원이 투입돼 지하 1층·지상 4층(총 면적 4200여㎡) 규모로 지어졌다. 유물은 4000여점에 이르고 이 가운데 단체와 시민, 학생이 기증한 유물은 2250점이 넘는다. 박물관은 해양물류 역사관, 근대자료 규장각실, 근대생활관, 기획전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군산 시내의 생활상이 잘 소개돼 역사체험장

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에는 선교사 특별전을 비롯해 경술국치 103주년 추념 기획전, 군산 미술 재조명전, 터키문화 특별전 등 32차례의 다양한 전시와 공연을 진행했다. 박진석 관장은 "지난해 6월 근대문화 벨트사업의 완공으로 박물관 인근의 7개 근대건축물을 테마 단지화했고, 근대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구성,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성장했다"며 "관람객과 호흡하는 문화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근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 묘목시장 장사진

점음 시민들이 지난 15일 점음 산림조합(조합장 김민영) 나무시장을 찾아 무료로 나눠주는 묘목을 받기 위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점음=박기섭기자 parkks@kwangju.co.kr

## 단신

###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120주년 포스터 공모전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사장 김대근)은 동학 농민혁명 120주년을 맞아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포스터 공모전을 연다. 접수기간은 4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이며, 중등부·고등부·대학(일반)부를 나눠 공모한다. 공모전 주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신양하고자 하는 내용 ▲

동학농민혁명의 발생배경, 동학농민군의 활동모습 및 성과 등이다. 재단 홈페이지(www.1894.or.kr)에서 출품 신청서를 작성해 출품작 1점과 함께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수상작은 5월 3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063-536-1894) /점음=박기섭기자 parkks@

### 남원시 노인복지관 5개 경로당과 거점복지관 발대

남원시 노인복지관(관장 김봉술)은 18일 인월면 복지관에서 운봉, 인월, 아영, 산내지역 5개 경로당과 협약을 맺고 거점복지관 발대식을 가졌다. 지난 2012년 10월 개관한 시 노인복지관은 마을 경로당과의 연계를 통해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농촌지역 노인들을 직접 찾아가는 거점복지관 사업을 시작했다. 시 노인복지관은 앞으로 운봉, 인월, 아영, 산내지역 5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 순창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자 선정

순창군은 최근 군 교통약자 이동권의 증진위원회를 열고 (주)한국지체장애인협회 순창군지회(대표 김문곤)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탁자로 선정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1·2급으로 등록된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에게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콜택시는 이용일 1~7일 전부터 예약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일반택시 요금의 50% 수준인 1750원으로 책정해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연중무휴 운영된다. /순창=이희희기자 dhlee@

### 고창군, 벼 무논점과 재배 아산면에 시범사업 추진

고창군은 못자리 없이 벼씨를 파종하는 무논점과 재배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아산면 일원 30ha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벼 무논점과 재배기술은 기계양과 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파종할 수 있고, 관행 이앙 농법에 비해 35%의 노동력 절감과 ha당 160만원 정도의

경영비 절감도 가능하다. 고창군 관계자는 "못자리가 필요 없고 노동력 및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벼 무논점과 재배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쌀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

### 전주시 공무원들 상점과 1대1 결연

# '전통시장 살리기' 팔걸였다

전주시 공무원들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발벗고 나섰다. 전주시는 "시 산하 88개 부서 290개 팀 공무원들이 전통시장 290개 상점과 1대1 결연을 맺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 공무원들은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커뮤니티 모임에 남부시장 등을 소개하는 한편 부서 회의나 선물 등을 살 때 이들 상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는 매출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상점 주

인의 예로를 청취, 행정에 반영할 것을 발걸음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앞장서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고 다양한 홍보를 한다면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돼 전통시장이 활성화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설 명절에 1억 8000만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하고, 표창 부상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전통시장 살리기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전주=부인=강철수기자 knews@

### 정읍경찰,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호응

# 매월 1회 학폭가해학생 대상 인성교육

정읍경찰서(서장 김동봉)가 국립공원 관리공단 내장산 사무소와 손을 잡고 청소년들의 사회성 증진을 위한 선도 프로그램을 실시, 호응을 얻고 있다. 정읍경찰서와 내장산 사무소는 이달부터 매월 1회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희(喜), 희(嬉), 희(希)'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내장산의 숨겨진 이야기를 듣고 '내장산 바로알기 OX 퀴즈'를 비롯해 내장산 숲체험, 자연놀이, 자연물 공예체험 등으로 구성된 대인관계와 사회성을 증진시키

고,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에게 필요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양보의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A(16)군은 "자연과 더불어 숲 체험을 하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자연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배웠고, 조용히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김동봉 서장은 "앞으로 학교폭력 척결을 위해 다양한 인성 힐링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